

2001년 내 건설 경기 호전 40%·환경·리모델링 사업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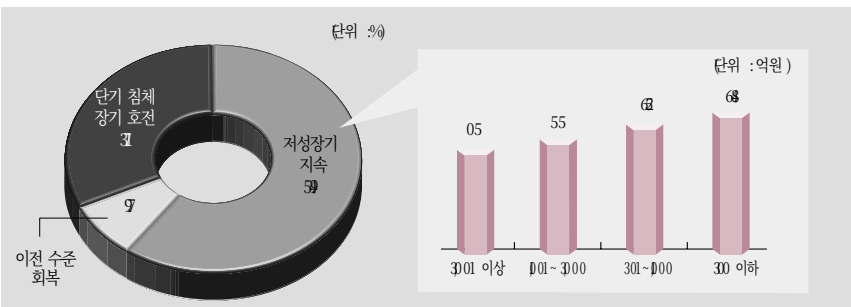
- 남북 경협은 비교적 '낙관', 건설 경험의 애로는 자원 조달 문제 -

최근 정부와 주요 연구기관들은 2001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5% 수준에서 3% 수준까지 하향 수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에 대해서도 저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만발하고 주식 시장에서도 극심한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향후의 경제 전망은 한마디로 오리무중인 셈이고 건설경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향후 5년은 저성장 49%

우리나라 건설업 CEO의 절반 이상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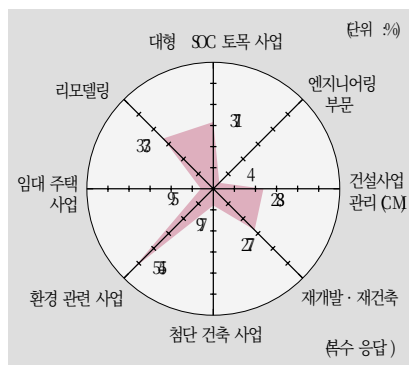
향후 5년간 건설 경기 전망



환경 관련 사업이 2000년대 국내 건설 시장의 가장 유망한 사업 분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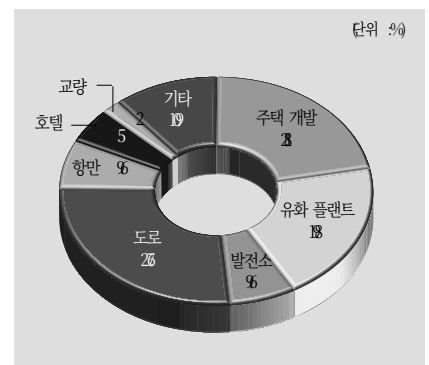


2000 년대의 유망 사업 분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건설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 59.4%는 저성장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31.7%

해외건설 유망 공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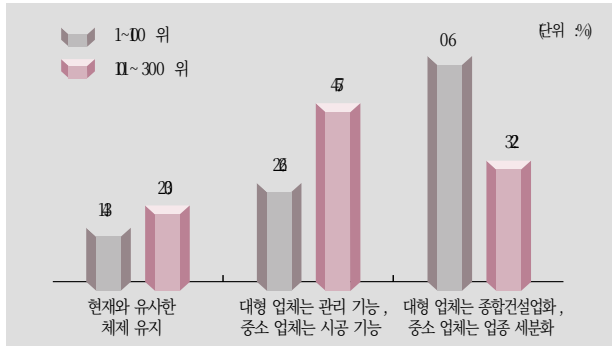
에 달하는 응답자는 단기적으로는 침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조조정 완료 후 IMF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도 79% 나타났다.

향후의 건설 경기를 보는 시각은 업체의 매출액이 적을수록 보다 비관적이다. 즉, 저성장 지속으로 전망하는 응답자 비율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 업체에서는 68.4%, 301억 1,000억원대에서는 62.5%, 1,001억 3,000억원대에서는 55.0%, 3,001억원 이상 업체는 5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상 위기감이 대형 업체보다는 중견·중소 업체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환경·리모델링 사업이 유망

건설 경기, 특히 전체적 건설 투자 규모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향후 건설 업체로 하여금 보다 세분화된 분야에서의 전문화·특화 전략을 모색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000년대의

향후 대·중소 건설업체의 역할 변화 전망



국내 건설 시장의 유망한 사업 분야를 묻는 질문(2종목 복수 응답)에서 CEO 들은 환경 관련 사업(55.4%), 리모델링(33.7%), 대형 SOC 토목 사업(31.7%), 재개발·재건축(27.7%), CM(23.8%) 등의 분야에 기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 첨단 건축 사업(7.9%), 임대 주택 사업(5.9%), 엔지니어링 부문(4.0%) 등을 꼽았다.

한편 해외건설 시장의 유망한 분야로는 도로 26.7%, 주택 개발 21.8%, 유휴 플랜트 19.8%, 발전소 6.9%, 항만 6.9%, 호텔 5.0% 등의 응답을 보였다.

규모별 역할 변화 인식

좋은 삶에 “우리 건설산업은 바뀌어야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건설인이 동의하는 명제다. 우리나라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1980년대 말까지 건설업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적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따라서 ‘원청=일반건설, 하청=전문건설’이라는 단순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업체 수의 급증이나 산업 구조 및 생산 조직에 대한 각종 규제 변화로 인해 향후 건설산업 구조도 일대 변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번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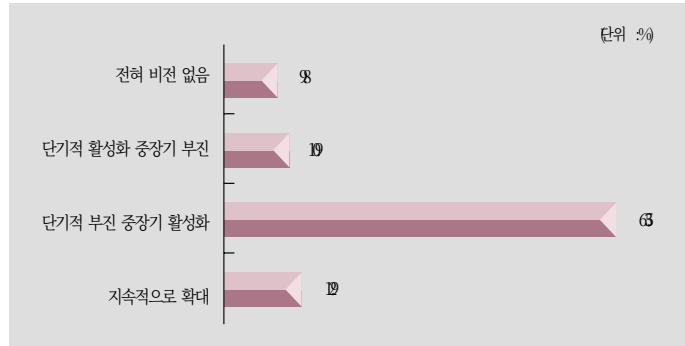
에 참여한 건설업 CEO 들은 “대형 업체는 종합 건설업화, 중소 업체는 업종 세분화(43.6%)” 또는 “대형 업체는 관리 기능, 중소 업체는 시공 기능(38.6%)”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설문 결과는 업체 규모, 즉 시공 능력 순위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형 업체의 종합 건설업화를 전망하는 응답 비율은 100위 이내 대형 업체의 경우 60%인 반면 101~300위권 업체는 3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전망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CEO 자신이나 자기 회사의 전략적, 규범적 포지션에 보다 많이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재원 애로가 남북 건설 경험의 ‘걸림돌’

1997년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남북 건설 경험 전망



업 경영자들의 90%가 2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전망은 최근 몇 년간 남북 경험으로 현실화되어 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경수로 사업 등에서 잘 알 수 있듯 남북 경험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건설업 CEO들이 보여주는 남북 경험에 대한 인식은 신중하지만 결코 비관적이지는 않다. 80% 정도의 응답자는 남북 경험이 지속적으로 확대(12.9%)하거나 단기적으로는 부진해도 중장기적으로는 활성화(63%)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활발해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진(10.9%)하거나 전혀 비전이 없음(8.9%)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된 남북 건설 협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재원 조달의 한계(45.5%)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혀 남북 경험에 있어서도 금융 및 재원 조달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외의 요인으로 CEO들은 북한의 폐쇄성(34.7%), 협상의 장기화(11.9%) 등 주로 북한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CJ



건설업 CEO의 상당수는 남북 경험이 단기적으로는 부진해도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